


|   |            |  |             |
|---|------------|--|-------------|
|  | <b>논 평</b> |  | <b>충남도당</b> |
| 2016년 4월 14일(목)   |            |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br>대변인 : 김정섭(010-6323-3000) |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010-2390-6824                     |            |  |             |

## 이제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차갑고 무서운 민심의 밑바닥을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응,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경제지표 악화, 새누리당 공천 학살 등 정부와 여당에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었음에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면죄부 대신 무거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1석 가운데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고, 석패한 지역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애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선된 후보들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민과 더불어 더 가까이, 더 겸손해 지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과 함께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타 당과도 힘을 합쳐 충청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독선보다는 소통에, 가진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특혜보다는 공정에 힘을 쏟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대장정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